

박정희 시대

www.Bandicam.co.kr



1961년 5월 16일

-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今朝未明))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 한강 인도교를 건너 서울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새벽 5시 중앙방송국을 통해 쿠데타 제 1성을 발표.
- 한국현대사의 한 시대를 풍비했던 군사쿠데타 주도세력들이 개발 독재 시대를 여는 순간이었다.
- 통상 쿠데타는 말 그대로 헌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 그대로 정당성이 취약하기에 쿠데타를 혁명으로 치켜세우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마련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리액션

- 1. 부정축재자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
- ➡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했고 이 법에 따라 부패한 자유당 인사, 무능한 민주당 인사, 부정축재자, 깡패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룹에다가 혁신계 인사까지 반혁명세력으로 몰아 대거 잡아들였다.
- 심지어 7월 13일에는 장면 전 국무총리 등 19명이 업무상 횡령 및 장물 취득 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 2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규정한 구정치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활동 규제방안 마련
- ➡ 5월 22일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23일을 기해 해체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1962년 3월 16일에는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치활동 정화법’을 공포했다.
- 군사 쿠데타 세력은 이런 조치를 통해 한편으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한 구정치세력을 과감히 정화한다는 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 3 사회정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국민적 캠페인 즉 강패소탕



- 5월 24일에는 댄스홀에서 춤을 추던 청춘남녀 45명을 ‘옥내외 집회 금지령’ 위반으로 체포했다.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 또한 440명의 포주를 체포하고 4411명의 성매매여성을 지브로 돌려보내고 영화를 검열하고 립스틱이나 기타 수입사치품들을 수거해 불태우기도 했다.
- 공무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를 색출하여 해고했고, 술집에 외상값이 많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관료들까지 대대적으로 해임
(우스갯소리로 중화각이라는 중국 음식점의 주인 진서방이 외상이 없다 하여 해직될 뻔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줬다 함)

- 4. 5월 23일에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 방안을 발표 이후 정기간행물 1200여 종을 폐간시키고 언론사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언론출판 정화 조치를 취함
- 그 결과 916개 언론사 중에서 일간지 39개 일간통신 11개 주간지 31개만 겨우 남게 되었다.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민족일보 조용수)

- 5. 경제개혁 : 6월 9일 농가부채를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 고리채 정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리 2할 이상의 고리채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정지
- (농민의 불만을 수렴함으로써 쿠테타에 대한 농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더 강했다.)

정치의 진출

- 군부세력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지만, 혁명을 완수하면 군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군정을 지속할 수 없었다.
- 그렇기에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 위해 1961년 10월경부터 김종필의 주도 아래 극비리에 창당작업 진행
- 선거전략 1 민주공화당은 민정당을 포함한 야당을 부패한 기성 정치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참신성을 부각
- 2 민족적 민주주의론
- 3. 기성정치인을 엘리트 기득권층으로 규정하는 반면 자신은 서민적 이미지를 내세워 대중에게 직접 호소

정치의 진출

- 윤보선의 색깔론... 그러나...
- 19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박정희가 15만여 표차로 승리
- 뒤이은 11월 26일 총선도 공화당의 압승
- (공화당 110석 민정당 41석 민주당 13석)
- 그리고 처음에는 강하게 단행되었던 일련의 개혁조치가 타협조치로 이어지면서 부패사건이 줄지어 일어남
- 14대 경제의혹 사건 :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빠짱꼬 사건

4대의혹 간략 설명

- 증권 파동 :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
- 워커힐사건 : 미군의 휴양지를 만들어 외화를 벌겠다는 목적으로 워커힐 호텔 등 위락시설을 건설하면서 그 공사 자금 일부를 횡령해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유용한 사건
- 새나라 조립공장에서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파는 수법으로 창당자금을 마련한 사건([일본 의존형 경제 개발정책](#))
- 빠짱꼬 사건 : 수입이 금지된 도박기구인 빠짱꼬의 수입을 허가하고 영업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 김종필이 책임 지면서 외유 떠나고 1963년 3월 15명이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

군사정권 첫 위기

- 한일 회담
- 한국에게 10년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더
불어 연리 35%에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2억 달러의
정부 차관과 1억 달러 이상의 민간 상업 차관을 제공
- 3월 24일 서울대생 ‘한일회담 즉각 중지’ 그리고 가두시위
- 가두시위는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도시로 확산
- 500여 명의 고등학생들 연좌농성
- 5월 20일 한일굴욕외교반대 학생총연합회 주도로 서울대
문리대에서 서울시내 대학생 연합시위
- 그리고 6월 3일

시위와 저항이 심해지면?

- 인혁당사건의 등장
- 조작된 흔적이 너무 강해서 검사가 사표 제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192204005&code=210100

시위와 저항이 심해지면?

경제개발만이 살길이다

그러나 그 경제개발은?

화폐 개혁의 목적과 실패

- 장롱속에 숨어 있는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내고자 단행한 조치
- 기존의 화폐단위인 ‘환’을 ‘원’으로 바꾸고 10환을 1원으로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1961년 8월부터 준비해서 1962년 6월 9일 밤 0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시행
- 재무부장관을 비롯한 5명의 준비반을 중심으로 극비리에 진행. 심지어는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기획원 장관조차도 몰랐을 정도였다.
- 미국이 원조국가인 한국이 자신들 동의없이 개혁한 것에 항의 특히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인 예금의 일부를 동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
- 결국 1962년 12월 17일 박정희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화폐개혁은 확실히 실패했음을 인정

베트남 파병

-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계기
- 파병의 명분 : 보은론과 도미노론
- 1965년에 1770만 달러였던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1970년에는 7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 (한진그룹 특혜 : 5년동안 베트남에서 1억 3000만 달러 벌고 그 공로로 1969년 3월 대한항공 인수)
- 그러나 젊은이들의 피 : 1964년부터 1973년 3월에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철수하기까지 8년 6개월 동안 총 32만 명의 한국군이 파견되어 전사자가 5000여명 부상자가 1만 6000여명

군사적 동원체제 강화

- 1968년 1.21 사태
- 1968년 10월 40일 울진 삼척 지역 130여 명의 대규모 무장 공비 침투사건(이승복)
- 교련과 예비군제도
- 고문 고문 : 서승
- 전태일과 광주대단지 사건 그리고 와우아파트의 붕괴
- 돌파구 : 남북대화과 복지정책

유신체제의 등장

- 유신시대의 금지곡
- 유신시대 노래
- 막걸리 반공법
- 선량한 국민을 왜 못살게 구느냐 공화당이 공산당보다 못하다 : 찬양 고무죄로 2년형
-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아 : 구속

민주화 이후에 박정희를 보다

- 1960년대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라던 대중이 1970년대에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냐”라고 말하기 시작
- 현재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비 또는 양시에 머뭇
- 하나의 박정희가 아닌 다양한 박정희를..